

# 5·18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 야외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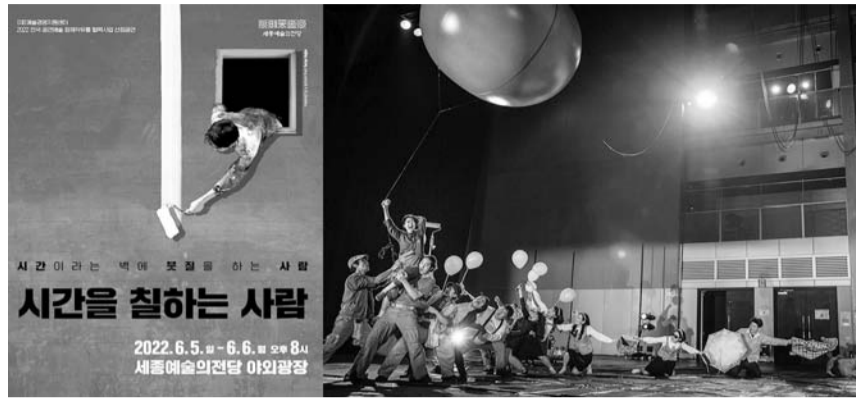
오는 5~6일 세종예술의전당 시작... 전국 4개 지역 광장서 무대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만들어진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이 전국 순회공연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들'이 야외공연으로 각색돼 전국 4개 지역의 광장 등에서 1일 밝혔다.

작품은 오는 5~6일 세종예술의전당 야외광장을 시작으로 밀양아리나 성벽극장(6월 17~18일), 진주 남가람 문화거리 야외공연장(8월 5~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광장(9월 9일~12일)에서 관객을 만난다.

작품은 5·18 최후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과 얽힌 '칠장이'의 이야기



기를 그리고 있다.

야외공연으로 각색된 작품은 내부 공연때는 안전 등의 이유로 하지 못했던 햇불, 연막탄, 물 등의 특수 효과를 사용한다.

또 광주만의 이야기가 확대돼 모든 지역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세종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첫 무대는 공연에 집중해 감상할 수 있는 '움직이는 객석(100석)'이 도입됐으며 무대 뒷모습도 엿볼 수 있는 '나들이석(400석)'이 마련된다.

작품은 지난 2019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시범공연을 선보인 뒤 4년째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공연은 움직이는 객석이 도입돼 관객이 작품의 흐름과 배우의 움직임, 이야기를 따라 극장 내를 여행하듯 관람하는 것이 특징이다"며 "야외공연에서 느끼지 못했던 현실감이 더해져 5·18 현장에 있는 듯한 감동이 전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 '서용석류 피리산조·판소리 심청가' 공연

광주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용석류 피리산조와 판소리 심청가 무대가 무등산 자락에서 펼쳐진다.

광주문화재단은 4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에서 토요일상설공연으로 '윤현명 서용석류 피리산조'와 '조아람 풍조제 심청가'를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22무등올림픽제 '무등 밤마실'과 연계돼 펼쳐져 다양한 전시·전통문화체험을 하며 즐길 수 있다.

국악인 김산옥의 사회로 진행되는 무대는 윤현명의 '서용석류 피리산조'로 시작된다.

서용석류 피리산조는 남도 음악의 대가인 서용석 명인이 1984년부터 구음(口音)으로 가락을 구성하기 시작해 1987년 완성한 산조이다.

피리의 좁은 음역과 날카로운 음색 등의 한계를 깊이 있는 선율 구성과 자연스러운 장단으로 극복했

으며 계면조의 깊고 굽은 성음이 특징이다.

윤현명은 제 14회 빛고을전국국악경연대회 기악 일반부 대상을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대취타를 이수했다.

이어 조아람의 풍조제 심청가 흥행선전야가 소리된다.

작품은 효녀 심청이 아버지의 눈을 뜨게하기 위해 인당수로 떠나기 전날 아버지와 딸의 서글픈 이별 대목이다.

조아람은 전남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고 나주시립국악단원을 역임했으며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여수전남전국국악경연대회 판소리 명창부 대상(국회의장상)을 받았다.

공연은 마스크 착용 후 현장 관람이 가능하며 전통문화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된다. /이영욱 기자

## 전통연희 소재 '고래씨 이상해' 亞문화전당 쇼케이스

내일 오후 7시 30분 예술극장 극장1

'전통연희'를 소재로 현재의 사람 이야기를 다룬 작품 '고래씨 이상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첫 선을 보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다음달 3일 오후 7시 30분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연희집단 더(The) 광대의 창작연희극 '고래씨 이상해'를 공연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콘텐

츠 공연개발 사업에 선정돼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영상과 전자음악으로 구성됐다.

1989년 태평양에서 발견된 52Hz 주파수를 가진 고래를 토대로 현대 사회 속 '소통'을 이야기한다.

또 작품은 바닷속의 신비로움을 표현한 영상과 연희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전통 장단을 매개로 한 전자음악이 귀를 즐겁게 한다.

다양한 바닷속 움직임은 진드뽀깅긋 지진으로 표현했으며 육조로 등장하는 소품이 바다에서는 용선으로 바뀌어 윤택하게 관객에게 다가간다.

작품은 '고독한 목욕' '달걀의 일' 등의 작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안정민 연출가가 연출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계자는 "이 작품은 '더 광대'가 미디어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며 "해안 지역을 집중 연구해 작품에 녹여낸 창작작품을 통해 현대인의 쓸쓸함을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광양시, 서예 전시 '어매의 노래... 두번째 이야기' 선보여

매원 흥현미 서예자 다양한 형태 서예 작품... 광양민으로 옛 시절 회상

광양시는 오는 3일부터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서 매원 흥현미 작가의 '어매의 노래... 두번째 이야기'를 연다.

이번 초대전은 지역민에게 다양한 시각예술 분야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세 번째 전시회로, 다양한 서예 작품 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어매의 노래'는 지난해에 이어 광양민으로 글로 쓴 작품으로 기획한 두 번째 이야기로 서예 작품은 다소 무겁고 어렵다는 생각을 내려놓도록 화선지 대신 캔버스에 다양한 재료



와 먹물이 함께한 작품을 선보여 대중과 공감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흥현미 작가는 광양청년작가회 회장과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광양지부 회원으로 활동 중으로 후학 양성

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부친인 청원 흥은 옥 작가의 뒤를 이어 서예가로서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탁월한 문화예술과장은 "다양한 서예 작품을 즐겁게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어매의 노래'는 오는 3~9일까지 열리고, 전시회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화예술과(061-797-252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조준의 기자

## 강진서 '유안석 작가 사진 전시회'

다산박물관 지역작가 초대전 '빛과 시간이 머물다'

강진군 다산박물관은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유안석 사진작가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지난 3월부터 3달에 걸쳐 전시했던 두 번의 지역작가 초청 이후 세 번째 개최하는 지역작가 초대전이다.


이번 초청 작가 유안석 사진작가 전시회는 '빛과 시간이 머물다'를 주제로 강진군의 여러 모습을 담은 25여 점의 사진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 사진작가는 전라남도미술대전, 광주광역시미술대전, 대구경북미술대전 등 수 많은 대전에서 우수상의 다수 입선했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장흥지부 및 강진지부 회원전에 출품하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



▲유안석작 '그리움은 파도를 타고'

쳐왔다. 현재는 한국예총 강진지회 부회장과 한국사진작가협회 강진지부장을 역임하고 있어 강진 지역 사진 작가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술 터전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을 쏟고 있다. /강진-한홍수 기자



# 전국 3만6천명 여성 최고의 직업

아모레 카운셀러

※ 문의만 하여도 선물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여성 화장품 판매 1위

대한민국 기초 화장품 1위 셀화수

대한민국 색조 화장품 1위 헤라

제약에서 만든 건강식품

1. 여성으로 가장 잘 할수 있고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판매와 재판매가 손쉽고 고객과 본인이 함께 이해지는 일석이조!!
2.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리미엄 브랜드 입니다. 설명이 필요없이 판매가 쉬운 대한민국 명품 화장품 입니다.
3. 기본수당 + 영업판매수당 + 각종 판촉지원 + 교육지원 + 해외여행 기회..... 등

아모레 신안특약점 수퍼마스터 송광자

010-3634-5083

062-522-2352 / 2353